

## Minnette E. Norton의 선교 활동과 번역 우화집 〈유몽기담〉

허순우\*

〈차례〉

1. 서론
2. ‘여성회의’ 보고서를 통해 본 Minnette E. Norton의 선교 활동
3. Minnette E. Norton의 번역 우화집 〈유몽기담〉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네트 노튼의 선교 활동과 그가 번역한 책 〈유몽기담〉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의 번역집 중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는 아동문학 형식기 동화집으로 몇 차례 언급되었지만, 그보다 앞서 출간된 〈유몽기담〉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국에서의 그의 선교 활동도 그간 알려지지 않아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해보려 했다.

검토 결과 선교사인 남편 아서 노튼과 함께 20세기 초에 한국을 방문한 미네트 노튼은 감리교 감독교회 ‘여성회의’에 소속되어 약 20여 년 동안 황해도 해주와 서울 등에서 아동, 여학생,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고, 또 의료위원과 출판위원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선교 후반기인 1923-1925년 사이에 미네트 노튼은 〈유몽기담〉,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 〈절름발이 친왕〉 등 적어도 세 편의 작품을 번역하여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유몽기담〉은 이습우화를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 등 서구의 옛이야기들을 엮은 우화 번역집이다. 〈유몽기담〉은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에 비해 읽기 쉽게 번역

\* 부산대학교 부교수

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더 어린 독자들을 대상으로 출간된 책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한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이습우화가 교과서에 게재되었으며, 20세기를 전후한 당시, 이습우화는 계몽·자강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기독교 선교 위원인 미네트 노튼은 이습우화를 비롯한 서구의 옛이야기들을 엮어 정직, 성실, 봉사 등 당시 기독교 선교단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가치들을 쉽고 명확하게 담아내는 방향으로 번역을 시도했다 하겠다.

**주제어** 감리교 감독교회 여성회의, 해주, 서울, 교육, 출판, 아동, 이습우화, 번역

## 1. 서론

미네트 노튼(Minnette E. Norton, 1880-1970)은 미국 감리교회 의료선교사인 남편 아서 노튼(Arthur. H. Norton, 1877-1959)과 함께 1906년경 한국을 방문하여 1926년까지 약 20여 년간 한국 선교에 힘을 쏟았다.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1832-1909), 애니 베어드(Annie Baird, 1864-1916), 매티 노블(Mattie Noble, 1872-1956) 등 생애와 활동이 비교적 자세히 밝혀진, 동시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 인물들과 달리 그간 미네트 노튼은 생애나 한국에서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미네트 노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 감리교 선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감리교회 역사자료 검색서비스’<sup>1)</sup>에서도 미네트 노튼이나 노튼 부

1)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서 노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미감리교회 의료선교사. 미국출신. 1906년경에 내한하여 황해도 해주지방에서 개척선교 의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13년 해주에 노튼 기념병원을 지었는데 이후 이 병원은 구세병원(救世病院)으로 명명되고 이를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의 선교사업과 의료사업이 전개되었다. 1917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이사, 1922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안과학

인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정식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의 부인으로서<sup>2)</sup> 혹은 선교회 회원으로서 선교 활동에 참여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sup>3)</sup>

본 연구에서 미네트 노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언급된바, 미네트 노트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세 권의 한글 번역 작품집을 출간하여 근대 초기 한국의 아동문학 형성에 기여하였고, 감리교 감독교회 ‘여성회의’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근대 초기 한국의 여성과 아동 교육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선교사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지는 못했더라도 근대 한국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의 노력이 발굴될

교수로 부임. 건강악화로 인해 1926년 귀국하였다.”(웹사이트 주소는 참고문헌참조.)

- 2)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선교사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하여 타국에서 교육과 구제에 힘쓴 사람들을 모두 광의의 선교사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899년 출간된 감리교 감독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제1회 한국 ‘여성회의(The Woman’s Conference)’ 연례 보고서에 나타나 있듯이, 당시 ‘여성회의’에서는 “wives of missionaries in charge of work”라고 하여 여성 선교사와 ‘선교사의 아내’를 구분하였다.(『First Annual Meeting of the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Korea』, 1899, 2쪽 참조.)
- 3)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미네트 노트의 동화 번역 작업을 소개한 두 편의 논문에서도 그녀는 아서 노트의 부인으로만 언급되었고 기타 활동은 거론되지 않았다. 두 논문에서는 각각 “번역자는 노둔(魯敦) 부인(Mrs. A. H. Norton)으로, 판권란의 역술자에 ‘경성 정동 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교선교사 노트(Arthur. H. Norton)의 아내이다.”(염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2) -기독교 계열의 번역 동화 앤솔러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2), 233쪽.)와 “노튼 부인은 세브란스 병원 안과 의사인 노트(Arthur. H. Norton)의 부인으로 그녀에 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노트에 관한 정보로 대신하면, 그는 미 감리회 소속 의료선교사로 1907년 내한하여 초기에 황해도 지역 선교사로 활동, 1913년 해주에 노트 기념 병원을 설립했는데 이는 ‘구세병원’으로 불렸다. 1917년 세브란스 의학 전문의 이사, 1922년 세브란스 안과교수로 부임했다.”(김성연, 「근대 초기 선교사 부인의 저술 활동과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278쪽.)라고 미네트 노트를 소개했다.

필요가 있는데, 미네트 노트가 그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네트 노트와 관련하여 그의 번역 작업이 두 편의 논문에서 거론되었다. 먼저,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를 다룬 연구에서는 미네트 노트의 〈넙군의새옷과다른니야기〉라는 책을 살폈는데, “일제 강점기에 외국인이 번역하여 엮은 동화 앤솔러지로는 유일한 작품집”<sup>4)</sup>이라고 평가했다. 또 해당 작품집은 세계 명작들을 고루 뽑아 한국어로 옮겼으며, 독자를 고려하여 기독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으려 했고, 외국 동화의 조선화(한국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서구적 요소와 한국적 요소가 절충적으로 결합되어 어색한 부분, “~했다.”로 끝나는 문체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sup>5)</sup>

선교사 부인의 저술 활동을 다룬 다른 연구에서는 〈넙군의새옷과다른니야기〉와 더불어 〈유몽기담〉, 〈절름발이 친왕〉을 미네트 노트의 작품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짧게 언급하였다. 〈넙군의새옷과다른니야기〉는 서양 동화, 조선의 전래동화, 창작동화를 담은 책으로 일제 강점기에 번역된 세계동화 앤솔러지 중 기독교 계열을 대표하는 것이며, 〈유몽기담〉은 컬러 삽화를 곁들인 동화 번역물이고, 〈절름발이 친왕〉은 남편인 아서 노트가 번역자로 되어 있으나 정황상 미네트 노트의 번역작인데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대강이다.<sup>6)</sup>

선행연구에서 말한 것처럼 〈절름발이 친왕〉은 현재 실물을 볼 수 없지만, 〈넙군의새옷과다른니야기〉와 〈유몽기담〉은 각각 서강대학교 도서관과 아단문고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그런데, 아단문고에서

4) 엄희경(2012(2)), 앞의 논문, 233쪽.

5) 엄희경(2012(2)), 앞의 논문, 233~237쪽.

6) 김성연(2015), 앞의 논문, 279~280쪽.

7) 현재 내용 확인이 가능한 두 작품은 서강대학교도서관 소장본 〈넙군의새옷과다른니

제공하고 있는 <유몽괴담>은 앞의 논문에서 언급된 것과 달리 컬러 삽화는 없고, 컬러 표지에 네 편의 흑백 삽화가 있는 형태이다. 그러니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유몽괴담>은 또 다른 판본일 가능성도 있다. 세 편의 작품집 중 <절름발이 친왕>은 현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는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자세히 분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는 <유몽괴담>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미네트 노튼의 선교 활동은 ‘감리교 감독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에서 발행한 한국의 ‘여성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삼아 검토할 것이다.<sup>8)</sup> 감리교 감독교회는 1899년에 처음으로 해당 ‘여성회의’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적어도 1930년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보이는데<sup>9)</sup>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기와 발간 주체가 미네트 노튼이 한국에서 생활한 시기를 포괄하고 또 미네트 노튼이 소속되어 활동했던 단체와도 일치하여 그간 알려지지 않은 미네트 노튼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1920년대<sup>10)</sup>에 발행된 미네트 노튼의 번역 우화집 <유몽괴담>을 소개하고 감리교 감독교회 한국 ‘여성회의’에 소속되어 한국의 여성과 아동 교육 등에 힘을 쏟은 미네트 노튼의 선교 활동을 소개하는 기초 연구를 지향한다. 대상에

야기) (1925)와 아단문고 소장본 <유몽괴담> (1928)이다. 두 곳 모두 온라인상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8) 해당 보고서의 표제는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이다.(이하 해당 보고서를 인용할 때는 ‘여성회의’ 보고서로 칭하고 보고서가 발표된 년도를 병기함.)

9) 해당 자료는 예일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주소는 참고문헌 참조.)

10) 엄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1)-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소년운동 그룹의 번역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1), 213쪽.

대한 기록과 흔적을 발굴, 정리하는 이러한 기초 연구들이 축적되어, 특정 인물이나 단체, 시대 그리고 문학 등에 대한 이해 확장의 토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2. ‘여성회의’ 보고서를 통해 본

### Minnette E. Norton의 선교 활동

미네트 노튼은 선교사의 부인으로서, 남편인 아서 노튼이 의료선교를 펼친 해주지역에서 주로 선교 활동을 하였다. ‘여성회의’ 보고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1912년에 간행된 『Official Journal and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5권을 보면 미네트 노튼이 선교 활동을 시작한 초기 모습을 볼 수 있다.<sup>11)</sup> 보고서에 따르면 미네트 노튼은 1911년 10월에 6명의 유치원생들을 교육했다. 보고서가 작성될 즈음인 1912년 5월에는 원생이 36명으로 늘어났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그 수는 배가될 것이라고 예상

11) 1909년 6월에 간행된 ‘여성회의’ 보고서에 해주지역 선교에 관해 언급한 것이 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회의’에서는 서울, 계물포, 평양, 영변, 공주 등에 집중하였고, 해주지역에서 이루어진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회의’ 보고서, 1909, 33~38쪽.) 또 1910년 5월에 간행된 ‘여성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주 지역에 전담 여성 선교사를 임명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당시 임명된 선교사는 Gertrude E. Snively였다. (‘여성회의’ 보고서, 1910, 2쪽.) 1919년 간행된 ‘여성회의’ 보고서에 해주 지역의 선교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한 글 ‘Hai-Ju District’가 있는데, 1897년 황해도 연안 지역에서부터 이 지역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1910년까지 계물포 지역 선교회에 소속되어 운영되었고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주의 경우 1902년 무렵부터 조금씩 성장하여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고, 1904년에 최초의 여학교(girl’s Day School)를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Lulu Kim (1919년에는 전도부인으로 활약함)이 교육을 담당했을 뿐이고, 선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해주지역을 관리하게 된 것은 1910년경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회의’ 보고서, 1919, 23~25쪽.) 그러니 미네트 노튼은 감리교 선교회가 본격적으로 해주 지역에 관심을 즈음에 해주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 아이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을 위한 교실도 운영했는데, 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법에 대해 가르쳤다. 이 과정에서 미네트 노튼은 자기 집을 개방하여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sup>12)</sup> 아이들과 여성 교육에서 출발한 미네트 노튼의 선교 활동은 그가 선교 활동을 마감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1926년 즈음까지도 지속되었다. 교육과 아이, 여성에 대한 관심을 계속하여 가진 것이다. 이러한 미네트 노튼의 선교 활동은 ‘여성회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1913년 6월에 발표한 ‘여성회의’ 보고서에서 미네트 노튼은 해주에서 실시한 선교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그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고 또 성인을 위한 주일학교(Adult Sunday School)와 금요일 밤의 여성기도회(The Friday Night Woman’s Prayer Meeting)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기록했다. 특별히 병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도부인(Bible woman)인 Sara가 “follow up plan”을 시행하여 성인 주일학교의 규모가 확대되고, 성경구절이나 찬송을 아는 사람들의 수가 늘게 된 것을 의미 있는 사례로 보고했다.<sup>13)</sup> 그러나 당시 ‘여성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해주지역의 전도 활동과 주간 학교(Day School) 운영자로 임명한 것은 선교사인 Gertrude E. Snavelly와 Mary Beiler였다.<sup>14)</sup>

1916년에 미네트 노튼은 ‘여성회의’의 수석부의장직을 맡게 된다. 1916년 3월에 발표한 ‘여성회의’ 보고서에서 그는 해주에 있는 ‘Lucy J. Scott Girls’ School of Haiju’ 운영에 관해 보고하는데, 이는 그간 주간 학교를

12) 『Official Journal and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5권, 112쪽. 이 보고서는 예일대학교 도서관 Digital collection에서 볼 수 있다. 예일대학교 도서관은 해당 도서에 “Official Journal and Minutes of the 5th Session (March 5-12, 1912)”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실제 책의 표지에는 『Official Journal and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라고 쓰여 있다.

13) ‘여성회의’ 보고서, 1913, 74~75쪽.

14) ‘여성회의’ 보고서, 1913, 102쪽.

관리하던 Gertrude E. Snavely 선교사가 학교 관리를 미네트 노트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노트 가족은 1915년 가을까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 후 미네트 노트가 ‘Girls’ School of Haiju’의 운영을 맡게 된 것이다. 정부 관리가 해주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라고 평가했다는 이 학교에는 당시 7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5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었다. 미네트 노트는 보고서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능력과 더불어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닌 잘 훈련된 교사가 학교 운영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글을 마무리 하면서 “Our aim is to give the girls the ‘essentials of education with high ideals and strong Christian character.’”라고 하여 교육의 목표가 여학생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높은 이상을 갖게 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5)</sup>

1918년 ‘여성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네트 노트는 ‘여성회의’ 교육위원(Educational Committee)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그 해 해주의 선교 활동과 주간학교 운영을 위해 Blanche R. Bair 선교사가 임명되었으며, 미네트 노트는 보조 선교사(Assistant Missionaries)로 임명되었다.<sup>16)</sup> 1918년 6월 ‘여성회의’ 보고서에 미네트 노트는 ‘The Lucy J. Scott Day School, Haiju’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는데, 맥락상 제목에서 언급한 Lucy J. Scott Day School은 Lucy J. Scott Girls’ School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네트 노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주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교사 Daisy를 비롯하여 교사들의 변동 사항, 재정상의 어려움, 후원에 대한 감사, 전도부인의 활동, ‘Home Study Course’의 시행 등등에 대해 기록했다. ‘Home Study Course’를 언급한 ‘Cradle Roll’이라는 소제목의 글 끝에 “But if what has been accomplished was done by His

15) ‘여성회의’ 보고서, 1916, 20~21쪽.

16) ‘여성회의’ 보고서, 1918, 5, 134, 136쪽.

Sprit and thru Power, we know He will establish the work of our hands.”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힘을 신뢰한다는 다짐을 기록하였는데, 학교의 운영이 쉽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교육 선교에 임하려 노력한 미네트 노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sup>17)</sup>

1919년에도 해주지역 선교 활동과 주간 학교 운영을 위해 새로운 선교사 Jane Barlow가 임명되었고, 미네트 노튼은 보조 선교사로 기록되었다. 그의 역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Evangelistic Work & Girl’s School’이라고 하여 전도 활동과 여학교 운영으로 명시되어 있다.<sup>18)</sup>

1923년의 ‘여성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회의’ 위원들의 추천으로 상임 위원을 선출했는데, 미네트 노튼은 의료(Medical) 분야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19년과 1923년 사이의 자료를 볼 수 없어서 그 사이 미네트 노튼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23년 보고서 상의 ‘Report of the Social Service Committee’라는 소제목의 글에 미네트 노튼 등이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네트 노튼이 안식년을 보내는 등의 사정으로 선교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그리고 미네트 노튼의 선교 활동 지역이 해주에서 서울로 옮겨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wha Haktang’이라는 소제목의 글에 따르면 1923년 당시 미네트 노튼은 안식년을 보내는 선교사 Van Fleet와 타 지역으로 가게 된 선교사 Brownlee를 대신하여 유치원과 대학(Kindergarten Normal and College)의 일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20)</sup> 한 가지 의문점은 1923년 보고서에 ‘해외선교부 여성 선교사회’(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명단을 게재했는데, 그 중 ‘위원회의 회원이

17) ‘여성회의’ 보고서, 1918, 99~102쪽.

18) ‘여성회의’ 보고서, 1919, 35, 37쪽.

19) ‘여성회의’ 보고서, 1923, 10, 19~21쪽.

20) ‘여성회의’ 보고서, 1923, 63~68쪽.

아닌 선교사'(Missionaries not Members of Conference)에 서울 지역 상동(Sangdong)에서 유치원과 선교 활동을 담당하는 '선교사'로 미네트 노트를 적어, 그를 선교사로 표시했다는 점이다.<sup>21)</sup>

1925년 '여성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네트 노트는 '여성회의'에서 의료 위원(Medical Committee)과 출판 위원(Publication Committee)으로 일했다. 그리고 1925년의 '해외 선교부 여성 선교사' 임명 명단에 유치원 사역과 선교 활동을 마포 공덕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네트 노트가 유치원생, 소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선교에 이어 '여성회의' 안에서 의료와 출판 위원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sup>22)</sup> 그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가 세 권의 번역집을 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닌가 짐작하게 하는 요소라 하겠다.

남편 아서 노트의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해로 알려진 1926년까지, 미네트 노트는 '여성회의'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1926년의 '여성회의' 보고서에도 미네트 노트는 회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고, 특히 그녀의 번역 작업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흥미롭다. 1925년 '여성회의' 보고서의 위원회 기록<sup>23)</sup>과 1926년 '여성회의' 보고서의 'A New Work'라는 소제목의 글<sup>24)</sup>에 따르면 당시 '여성회의'에서 기독교문학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미네트 노트가 자신이 번역한 〈Little Lame Prince〉(절름발이 친왕)의 수정을 해당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남편과 함께 20세기 초 한국에 온 미네트 노트는 체류 전반기에는 황해도 해주지역에서 아이들, 여학생들, 여성들을 위한 학교 운영과 교육에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하였고, 후반기

21) '여성회의' 보고서, 1923, 105쪽.

22) '여성회의' 보고서, 1925, 3~6, 87, 104~105쪽.

23) '여성회의' 보고서, 1925, 90쪽.

24) '여성회의' 보고서, 1926, 58~59쪽.

에는 서울에서 역시 아이들, 여학생들, 여성들을 위한 선교에 참여하되,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와 출판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선교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그의 선교 활동 내역을 염두에 두면서, 그의 한국 선교 활동 후반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에 출간된 번역 우화집 <유몽기담>에 대해 알아보겠다.

### 3. Minnette E. Norton의 번역 우화집 <유몽기담>

미네트 노튼의 <유몽기담>은 그간 아동문학 연구 분야 등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를 다룬 연구에서는 <유몽기담>을 언급하지 않았고, <유몽기담>을 동화집으로 서술한 선교사 부인의 번역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삽화가 컬러로 되어 있다고 소개하는 데 그쳤음을 앞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유몽기담>은 판권지 정보에 따르면 <굼근의새옷과다른이야기>보다 1년 앞서 1924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1928년에 재판이 발행되기도 한 번역 우화집으로서, 초기 한국 아동문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집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 동화 앤솔러지를 검토한 연구에서 <유몽기담>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혹 우화와 동화를 구분하여 보았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에서도 “아동문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솝우화, 그림 동화, 안데르센 동화의 번역”<sup>25)</sup>을 언급한바, 우화를 중점적으로 수록한 <유몽기담>이 아동문학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sup>26)</sup>

25) 엄희경(2012(2)), 앞의 논문, 212쪽.

26) 한편 동화 앤솔러지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1921년에 출간된 윌리엄 베어드(裵緯良)의 <이솝우언>(해당 책은 온이퍼브 출판사에서 『이솝우언』이라는 제목으로 2020도에 e-북으로 출간되기도 했다.)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이솝우언>의 서(序)에 따르면 이 책 역시 아동문학의 영역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

1928년 간행된 〈유몽괴담〉 판권지에는 美國人 노튼 부인과 朝鮮人 崔斗顯이 저작자(著作者)로 기재되어 있고,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행했다고 썼다.<sup>27)</sup> 표지는 컬러판으로, 붉은 꽃과 넝쿨, 나비 그림이 장식되어 있으며 ‘쏘다지는깨송이’라는 소개말이 노출되어 있다.<sup>28)</sup> 한복을 입은 남녀 아이가 책을 들고 서 있는 뒷모습 그림 아래 ‘유몽괴담’이라는 책 제목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글로 쓰여 있고, 표지 하단에 ‘THE CHILD’S WONDER BOOK’이라는 영어 제목을 적었다.

표지 바로 뒷면에는 첫 번째 이야기인 ‘세마리 곰’을 표현한 흑백 그림 1편을 “세마리곰”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었고, 본문에도 3편의 흑백 삽화를 두었다. 이들 삽화는 장면을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세마리도야지삭기’라는 이야기에서 이리가 돼지를 잡기 위해 지붕에 있는 굴뚝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삽화 아래에 “일희가굴뚝으로나려

---

로 생각된다. 윌리엄 베어드는 〈이솝우언〉의 서에 “이 이솝우언(寓言)은 근대의 저작이 아니요, 고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헬라 백성들 중에서 나온 속전(俗傳)으로 2천여 년간을 이룬 유익한 이언(理言)으로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칠 때 짐승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양으로 여러 가지 슬기 있는 이치를 말하였다. (중략) 이 책은 우연뿐 아니라 좋은 이치를 가르칠 때 요긴히 참고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라고 하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이치를 가르치는 책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솝, 『이솝우언』, 배위량 역술, 온이퍼브, 2020, 10쪽.)

27) 1925년에 발행된 〈넙군의새옷과다르니야기〉의 판권지에서는 저작자 대신 역술자(譯述者)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한국인과 함께 번역을 하지 않았는지 美國人 魯敦夫人만 한자로 쓰여 있어 〈유몽괴담〉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바, 미네트 노튼이 〈Little Lame Prince〉(절름발이 친왕)을 한국인 김강과 함께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의’ 기독교문학위원회에 수정 의뢰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넙군의새옷과다르니야기〉역시 미네트 노튼이 단독으로 번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강이 〈Little Lame Prince〉번역에 참여했다는 정보는 김성연(앞의 논문, 2015, 279쪽)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28) 〈유몽괴담〉의 표지 디자인 방식은 1921년 출간된 윌리엄 베어드의 〈이솝우언〉과 유사하다. 〈이솝우언〉도 표지가 컬러로 되어 있고, 식물 이미지 등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했다. 또 작품 상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글 제목을 적었고, 작품 하단에 영문 제목을 밝혀주었다.

감”과 같이 제시하는 방식이다.<sup>29)</sup> 목차 부분에서는 한글 제목 ‘유몽기담’과 함께 한자 제목 ‘膺蒙奇談’을 병기하였고 각 이야기들의 한글 제목과 영문 제목을 세로로 적었으며 한자로 이야기 시작 쪽수를 표시해주었다.

<유몽기담> 에는 총 14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제목은 아래와 같다.

한글 제목	영문 제목
세마리 곰	The Three Bears
학을 타다	The Crane Express
거짓말 도하호는 으렁	The Boy who Cried Wolf
접동새의 성탄노래	The Robin's Yule Song
길에 노힌 돌	The Stone in the Road
밀밭헤 종달새	The Larks in the Cornfield
표주박 이야기	The Story of the Dipper
힘대로 일하라	Do What You Can
선흔 목자	The Good Shepherd
세마리 도야지사기	The Three Pigs
미암이와 기암이	The Ant & the Grass-hopper
적고 노란 암닭	The Little Red Hen
회고 어린 비둘기	The Fan Tail Pigeon
정직한 나무꾼	The Honest Woodman

목차에서 한글 제목과 영문 제목을 병기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문의 원작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솝 우화를 비롯한 옛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번역 우화집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남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 를 살핀 선행 연구에서 미네트 노튼이 “자국에서 명작으로

29) 흑백 삽화를 넣고, 삽화 하단에 삽화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경우에 따라 두 편의 삽화를 상 하단, 면을 분할하여 배치하는 방식 등이 <이솝우언> , <유몽기담> , <남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 간에 유사하다. 조선예수교회에서 발행한 책들의 유사점으로 생각된다. 단 화풍은 <이솝우언> 과 <유몽기담> 이 좀 더 비슷해 보인다.

인정받는 작품들을 읽고 자라 작품을 선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sup>30)</sup>라고 했는데, 〈유몽기담〉에 수록할 이야기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수록된 이야기들은 대체로 길이가 짧으며,<sup>31)</sup>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혜로운 등장인물의 사례를 제시하고, 교훈이 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번역집을 구성한 것은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와 유사하다. 다만,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에 비해 〈유몽기담〉은 한 면을 구성하는 행의 수와 행 당 글자 수가 적고, 사용하는 어휘나 강조하는 주제가 평이한데,<sup>32)</sup> 이는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에는 ‘맞흔직무’, ‘직분’과 같은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슬기와 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다면, 〈유몽기담〉에는 정직과 성실, 희생과 봉사, 협동 등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거짓말 뉘하흔는 으히’는 흔히 ‘양치기 소년’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이며,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로 알려진 이야기인데, 두 작품 모두 정직함을 강조한다. 또 ‘길에 노힌 돌’과 ‘표쥬박 니야기’는 타인을 위한 희생, 봉사가 좋은 보답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다음 ‘밑밭헤 쫓들새’, ‘미암이와 기암이’, ‘세마리 도야지사기’, ‘적고 노란 암뉘’은 성실함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며, ‘학을 트다’와 ‘힘대로 일흐라’는 봉사와 협동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들이다. ‘세마리 꿈’, ‘점동새의 성탄노래’, ‘회고 어린 비뉘이’ 또한 성실함, 지혜, 감사 등 교훈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 염희경(2012(2)), 앞의 논문, 234~235쪽.

31) 〈유몽기담〉에 수록된 이야기 중 상대적으로 긴 것이 ‘회고 어린 비뉘이’(9면)이다.

32) 〈유몽기담〉은 1면당 평균 14행, 행 당 32자이고,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는 1면당 17행, 행 당 39자이다.

마지막으로 ‘선혼 목자’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8장 12-14절과 누가복음 15장 3-7절에 기록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폭풍우가 부는 날 아기 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목자가 느낀 안타까움과 아기양을 찾아 메고 돌아오면서 느낀 기쁨 등을 성경 구절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나 <님군의새옷과다른니야기>에서 다른 이야기와 이질성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외국인 선교사로서의 번역자의 기독교 의식”을 ‘선녀의 새희선물’을 통해 드러내었던 것처럼,<sup>33)</sup> <유몽괴담>의 ‘선혼 목자’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나 구원 등의 어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유몽괴담>은 어린 아이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읽기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의 이야기,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단순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선택하면서도,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치관에 맞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6년 ‘여성회의’ 보고서에서 Mary R. Hillman이 번역을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친절, 용기, 진실, 정직, 성실, 믿음’ 등이라고 했는데,<sup>34)</sup> <유몽괴담>의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주제들도 결국은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가치관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전도라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낸 전도지 성격의 글이나 종교 소설과 달리 선교와 교육이라는 목적을 노골적이지 않게 내재화 한 흥미로운 읽을 거리는 <유몽괴담> 이전에도 출간되었는데, 1921년 경 조선예수교서회가 간행한 윌리엄 베어드의 <이습우언> 등과 같은 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sup>35)</sup> 해당 책의 판권지에 따르면 1921년의 <이습우언>은 장로교 선

33) 염희경(2012(2)), 앞의 논문, 236쪽.

34) ‘여성회의’ 보고서, 1926, 59쪽.

35)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가 <이습우언>을 출간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습 우화는 잡지 등에 부분 게재되었다.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윌리엄 베어드의 <이습우언>을

교사 裒緯良(William. M. Baird)이 ‘역술인(譯述人)’이고 정가는 45전이였다. 그리고 1928년에 출간된 〈유몽기담〉 재판(再版)의 ‘新刊書籍廣告’란에 다시 조선예수교서회에서 출간한 정가가 35전인 〈이솝우언〉이 등장한다. 1921년에 출간된 〈이솝우언〉과 1928년 책 광고에 등장한 〈이솝우언〉이 같은 책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20년대 당시 기독교 계열 출판사에서 독자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는 이솝 우화를 엮은 책을 출간하였고<sup>36)</sup> 미네트 노트 또한 이솝 우화를 비롯한 우화 성격의 이야기들을 모아 어린이 독자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전달하려 한 것을 볼 때, 우화를 통해 도덕적 교훈과 함께 우회적으로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윌리엄 베어드의 〈이솝우언〉과 비교해보면 미네트 노트의 〈유몽기담〉은 문학성과 직접적인 교훈성이라는 모순되는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쉬운 어휘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편의 〈유몽기담〉 이야기 중 ‘거짓말 도야하는 으렁’, ‘민암이와 기암이’, ‘정직한 나무꾼’ 등과 같은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세 편은 이야기의 윌리엄 베어드의 〈이솝우언〉에도 실려 있다. 그 중 ‘정직한 나무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꾼이 메르큐리우스 신전이 있는 강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강물에 빠뜨렸다. 도끼가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가난한 나무꾼은 강가에 앉아 소리내어 울면서 메르큐리우스 신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정본 이솝우화 - 금도끼와 은도끼〉<sup>37)</sup>

“20세기 초 등장했던 『이솝우화』 단행본의 완결편”이라고 평가했다.(유춘동, 『근대계몽기 조선의 『이솝우화』』, 연민학지 13, 연민학회, 2010, 228쪽.)

36) 이솝 우화는 1896년 『신정심상소학』에 처음 실리면서 국내에 소개되었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간결하고 흥미로우면서도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후 계몽을 위한 용도로 두루 게재되었다고 한다.(유춘동(2010), 앞의 논문, 214~216쪽.)

한 초부가 허수가에서 나무를 찍다가 그릇 도끼를 물에 떨어뜨렸다. 이와 같이 생계를 지탱하여가던 기계를 잃어버렸으므로 언덕에 앉아 자기의 불행한 운수를 탄식하였다. <이습우언 -수성(水星)과 초부(樵夫)> 38)

엇던 김숙하고 적막한 산골짜기에 물이 흘러 내려가다가 갑자기 물결이 썰나 지면서 거품이 하야케 내려나서 희빛헤 반짝반짝하는 시내물겘헤 나무나 허여셔 먹고 살아가는 썩 착흔 사름 하나히 잇섯다 엇더흔 가을날에 날이 새파라케 선 독괴를 엇기에 둘러메고 나무를 허러 나섯다 시내가로 내려가다가 그중에 큰 상수리나무 하나를 골나가지고 그 날선 독괴를 휘둘너셔 단번에 넘어트릴듯 이 힘썩 썩기시작하였다/(단락나누기 표시: 필자) 독괴밥은 조각조각이 훗혀져 놀나가고 독괴소리는 산을 울니어 바로 텃연스릅게 더편에서도 누가 독괴질이 나 흐는듯십혔다/얼마아니되여셔 나무군은 잠간 쉬기를 싱각하고 독괴를 나무에 기대 세우고 돌아안다가 실슈허야 독괴가 그만 밋그러져셔 바로 그 나무 밋헤 잇는 데일김흔물노 드러갓다 나무군은 괴가막혀셔 혼참이나 물속을 드러다보다가 그만 소리를 질넛다 “이제는 엇지하나 그러케 잘 들고 모양잇는 독괴는 사라도 살수업는것인디” 하였다 <유몽기담 -정직흔 나무군> 39)

인용문에 나타나 있듯이 <정본 이습우화> 와 <이습우언> 은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리게 된 상황을 매우 간략하게 서술했다. 그러나 <유몽기담> 은 감각적인 표현들을 동원하여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나무꾼의 행동을 묘사하였으며 나무꾼의 말도 직접인용 하여 현장감을 살렸다. 그리고 <이습우언> 에서는 한자 어휘로 표현된 것들이 <유몽기담> 에서는 쉬운 말로 풀이되어 있다.<sup>40)</sup>

37) 이습, 『정본 이습우화』, 권미선 옮김, 창비, 2009, 278쪽.

38) 이습(2020), 앞의 책, 78쪽.

39) <유몽기담>, 1928, 61-62쪽.

40) 예를 들어 <이습우언> 에서는 “초부”라는 어휘를 사용했고 <유몽기담> 에서는 “나무군”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또 〈유몽기담〉은 〈정본 이솝우화〉와 〈이솝우언〉에 있는 이야기의 일부를 삭제하여 줄거리를 단순화하기도 했다. 〈정본 이솝우화〉와 〈이솝우언〉에는 정직한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혹은 다른 나무꾼)가 일부러 강(혹은 물)에 도끼를 빠뜨린 뒤 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도끼까지 잃게 되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다. 그러나 〈유몽기담〉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정직한 나무꾼이 수신에게 칭찬과 상을 받는 내용으로 마무리 한 것이다.

메르큐리우스 신은 가난한 나무꾼이 진실하고 올바른 것에 감탄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선물로 주었다. 나무꾼은 뜻밖의 횡재에 기분이 좋아 동료들에게 돌아가 자신의 행운을 자랑했다. 〈정본 이솝우화 -금도끼와 은도끼〉 41)

수성의 신이 초부의 정직함을 기뻐하여 저의 도끼밖에 금은 도끼를 아울러 주었다. 초부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자기의 동무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말하니 〈이솝우언 -수성(水星)과 초부(樵夫)〉 42)

슈신은 “올타 정직한 나무꾼아” 하고 거룩한 얼굴에 깃븐빗을 씌우고 이러케 말하였다 “진실한 것은 너의 마음을 깃븐게 하고 굿세계 하느니라 진실한것은 세상에 모든 보비보다도 더욱 귀하니라 이제 나는 나갈디로 가야하겠다 이 은독기와 금독기는 너의 진실함을 보고 상급으로 네게 주는 것이다”하고 말하고 하안손을 흔들면서 물속으로 자회를 감초았다 나무꾼은 너머도 도하셔 아모말도 못하고 강물만 드러다 보고있고 금독기와 은독기는 여전히 강기에서 번적였다 나무꾼은 혼침이나 병병히 섰다가 슈신의 짜뜻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얼굴에는 깃븐이 그득하야 번적번적하는 독기를 들너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유몽기

41) 이솝(2009), 앞의 책, 278쪽.

42) 이솝(2020), 앞의 책, 78쪽.

담 -정직한 나무꾼> 43)

대신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물의 입을 빌어 정직함의 의미와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뜻밖의 상을 받게 되어 실감하지 못하면서도 행복해지는 나무꾼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내며 풍자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우화의 속성을 그대로 살린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역자가 독자에게 주제를 쉽게 풀어서 전달해주려는 의도가 담긴 번역이라 할 수 있는데, 미네트 노튼이 <유몽괴담> 을 이렇게 서술한 까닭은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 독자로 설정하여 눈높이에 맞는 번역을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다.<sup>44)</sup>

43) <유몽괴담> , 1928, 66~67쪽.

44) 이는 아이들과 청년을 공동 독자로 상정한 윌리엄 베어드의 <이솝우언> 과 달리 아이들만을 독자로 설정한 <유몽괴담> 은 훨씬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번역 방식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유몽괴담> 에 수록된 모든 이야기가 ‘정직한 나무꾼’처럼 직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세마리 꿈’이나 ‘거짓말 도하하는 으희’와 같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유몽괴담> 은 대체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들로 구성하고, 독자가 쉽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머지 두 편의 이야기 ‘거짓말 도하하는 으희’와 ‘미암이와 기암이’를 <이솝우언> 에 실린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소리를 힘껏 질러 이르기를 “도와라 도와라! 이리야 이리야!”하니 일하던 사람들이 달려왔다. 저희가 이것이 희롱하는 뿐인 줄 알고 웃고 돌아가서 일을 하였다. <이솝우언- ‘목동과 이리’> (25~26쪽)

마늘노 췌여 드러가면서 “늑대가 왓소 늑대 사름 좀 살너주오”하고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다 /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헛던일을 버리고 그 으희를 구하여 주랴고 모도 쫓차갓다 그러나 가서본즉 그 으희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빙글빙글 우슬뿐이오 늑대란 그림자도 보이지 아니했다 <유몽괴담 - ‘거짓말 도하하는 으희’> (12~13쪽)

인용문은 목동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이리)가 나타났다고 소리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가 거짓임을 알고 돌아가는 장면인데 두 이야기 모두

물론 〈유몽기담〉에서 어투나 문화 이해 등에 있어 눈높이에 맞는 번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로는 〈넙군의 새옷과다른이야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점<sup>45)</sup>으로, “~했습니다.”가 아닌 “~했다.”로 종결되는 딱딱한 서술어투, 그리고 한국 문화와 서구 문화를 다소 부조화하게 결합시킨 부분 등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수록 이야기인 ‘세마리 꿈’을 예로 들어보면 이야기를 “넙적에 었던곳에 꿈 세마리가 큰 수풀속에 혼집을 짓고 궂치살았다.”로 시작하여 “~했습니

---

소년이 소리치는 내용을 직접인용 했지만, 소년의 행위 등에 대한 묘사는 〈유몽기담〉의 것이 더 구체적임을 볼 수 있다.

개미와 귀뚜라미가 큰 들에 사는데 개미는 겨우 먹을 것을 저축하기 위하여 많은 곡물을 모으려고 종일 분주한 기동(起動)을 하였다. 희락(喜樂)으로 다만 놀기를 좋아하는 이웃에 있는 귀뚜라미는 마침내 개미를 유심히 아니하더니, 서리가 오는 때를 당하여 개미의 일하는 것과 귀뚜라미의 노래와 즐겨하는 것이 그치게 되었다. <이습우언 -‘개미와 귀뚜라미’> (15쪽)

엇던 들에서 어느 녀름날에 혼 개암이가 겨울 먹이로 밀알강이 썰알강이들을 부지런히 물어 드리고 잇섯다 밭암이 혼마리가 식원혼 옷을 닦고 즐거히 노래를 부르며 나무그늘 스이로 노닐다가 그 개암이가 썸을 흘니면서 일흔것을 보고 “너는 이 더운날에 이러케 식원혼곳에 와서 좀 즐겁게 놀지못하고 왜 비지썸을 흘너가면서 일만 헐나”고 무렷다 “나는 겨울랑식을 작만혼노라고 이러케 일흔것이다 너는 지금은 놀기가 도하도 인제던지 혼번은 혼탄혼날이 잇슬것이니 두고 보라”고 더답혔다 / 밭암이는 다시 ‘왕’하고 놀나서 개암이 잇는디서 좀 더 갓가운 나무에 가서 안져서 “이이 개암이야 너는 웬 걱정이 그리도 만흐나 말셔브터 겨울 걱정을 혼탄말이나 먹을것이 뜰에 ㄱ득헛논디 어느시브터 겨울걱정은 아니히도 도타 이리와서 나와 궂치 좀 놀아보자”고 개암이를 뵈엿다 / 그러나 개암이는 드른 테도 아니히고 도라가서 녀름리 부지런히 겨울먹이를 위헛야 일헛엿다 어느덧 겨울이 닥쳐 눈이 싸히매 밭암이는 먹을것이 업서서 거진 죽게되엿스나 개암이는 광에 싸히두엿던 각가지 곡식을 먹고십흔대로 먹고 서로 친구를 청헛여다가 즈미 잇게 지내고 잇섯다 <유몽기담 -‘밭암이와 기암이’> (43~44쪽.)

인용문은 개미와 베짚이 등으로 알려진 이야기인데, 겨울을 대비하지 않고 즐기만 하는 지혜롭지 못한 매미의 행동이 〈유몽기담〉에서 훨씬 실감나게, 그러면서도 쉬운 어휘로 서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5) 엄희경(2012(2)), 앞의 논문, 235~236쪽.

다.”체를 구사하는 문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자아냄을 느낄 수 있다.<sup>46)</sup> 또 영국의 전래동화인 이 이야기에는 본래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금발머리 소녀가 등장하는데, 번역문에서 소녀의 이름을 ‘에썬’으로 바꾸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추려 하였지만, 입식 생활이 보편화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낯설 수 있는 침대나 의자와 같은 소재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이런 점들도 번역작품을 포함한 초기 한국 아동문학이 자신만의 특화된 유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부여 한다면 소중한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이상으로 20세기 초 한국을 방문하여 교육, 의료, 출판 분야 등을 담당하며 약 20여 년간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 미네트 노튼의 삶을 살펴보고,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그가 출간한 번역 우화집 <유몽괴담>의 대강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미네트 노튼의 활동을 살펴본 기초 자료가 1년 단위로 작성된 공적인 성격의 선교회 보고서이다 보니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매일의 선교 활동이나 일상의 경험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간 남편 아서 노튼의 활동으로 그녀의 한국 생활을 대신 서술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대강의 활동이 밝혀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훗날 매티 노블이 기록한 “The Journal Of Mattie Wilcox Noble”처럼<sup>47)</sup> 미네트 노튼의 일상이 담긴 자료들도 발굴되어 그녀가 우화와 동화를 번역하여

46) “~했다.”체는 윌리엄 베어드의 <이슈우언>에서도 볼 수 있다.

47) 이 기록은 『노블일지』라는 책으로 번역, 출간되었다.(매티 윌콕스 노블, 『노블일지』, 강선미, 이양준 옮김, 이마고, 2010, 1~352쪽.)

출간하게 된 계기나 아이들을 교육하며 느낀 매일 매일의 감정이나 교육의 목표와 같은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해주시역 선교 활동을 보고하는 1913년 ‘여성회의’ 보고서에 제출한 ‘Hai Ju City Evangelistic Work’라는 글의 첫머리를 미네트 노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sup>48)</sup> 문설주에 글을 그어가며 매년 자신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던 유년 시절에 빗대어 선교 활동 경험을 키워가고 그것의 성장을 보고하는 일에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키와 달리 선교 활동 가운데는 물리적인 성장 여부를 측정할 수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일들이 있기도 하다고 기록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미네트 노트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아도 선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다. 그리고 보조 선교사로서, 선교회 임원으로서 20여 년을 봉사하면서 아이들, 여학생들, 여성들을 위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들을 위해 번역서를 내는 등의 작업이 그에 해당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네트 노트가 선교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독자들을 상정한 채 번역서들을 출간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책 출간 정황에 관한 직접적인 글을 찾지 못했고, 확인 가능한 두 편의 번역집에 서문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몽기담〉과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를 간략히 비교해보면 〈유몽기담〉이 좀 더 읽기 쉽게 쓰인 작품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는 두 책의 어휘나 문장, 주제 등을 세세하게 비교·대조하는 문체 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유몽기담〉의 경우 1928년에 재판이 발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게재

48) ‘여성회의’ 보고서, 1913, 74~45쪽.

되거나 선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번역되고 주목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시의적절하게 출간된 활용도 있는 책으로 평가받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이솝우화』 속 이야기들은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 출간된 아동 잡지나 여성 잡지 등에도 다수 수록되었다고 한다.<sup>49)</sup> 추후 <유몽괴담> 과 아동 잡지에 수록된 우화 등의 비교 연구를 통해 미네트 노트의 번역 작업이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49) 유춘동(2010), 앞의 논문, 229쪽.

## 참고문헌

- 아단문고 소장 〈유몽기담〉, 1928, 1~71쪽.
- 서강대학교 소장 〈님군의새옷과다른이야기〉, 1925, 1~77쪽.
- 이습, 『이습우언』, 배위량 역술, 온이퍼브, 2020, 1~95쪽.
- 이습, 『정본 이습우화』, 권미선 옮김, 창비, 2009, 1~373쪽.
-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32권(1899-1930).  
[https://findit.library.yale.edu/?id=digcoll%3A4735082&q=Woman%27s+Conference+of+the+Methodist+Episcopal+Church&search\\_field=all\\_fields&sort=score+desc%2C+date\\_dtsi+desc%2C+title\\_sort\\_ssi+asc&utf8=%E2%9C%93](https://findit.library.yale.edu/?id=digcoll%3A4735082&q=Woman%27s+Conference+of+the+Methodist+Episcopal+Church&search_field=all_fields&sort=score+desc%2C+date_dtsi+desc%2C+title_sort_ssi+asc&utf8=%E2%9C%93)( 예일대학교도서관)  
[https://library.yonsei.ac.kr/digicol/list/?&bk\\_4=Methodist+Episcopal+Church](https://library.yonsei.ac.kr/digicol/list/?&bk_4=Methodist+Episcopal+Church)(연세대학교 도서관)
- 『Official Journal and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5권, 1912.  
[https://findit.library.yale.edu/?utf8=%E2%9C%93&search\\_field=all\\_fields&q=Official+Journal+and+Minutes+of+the+Korea+Annual+Conference](https://findit.library.yale.edu/?utf8=%E2%9C%93&search_field=all_fields&q=Official+Journal+and+Minutes+of+the+Korea+Annual+Conference)  
( 예일대학교도서관)
- 김성연, 「근대 초기 선교사 부인의 저술 활동과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253~290쪽.
- 매티 윌콕스 노블, 『노블일지』, 강선미, 이양준 옮김, 이마고, 2010, 1~352쪽.
- 엄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1)-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소년운동 그룹의 번역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1), 211~249쪽.
- 엄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2)-기독교 계열의 번역 동화 앤솔러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2), 211~257쪽.
- 유춘동, 「근대계몽기 조선의 『이습우화』」, 연민학지 13, 연민학회, 2010, 211~232쪽.
- 감리교회 역사자료 검색서비스  
(<https://his.kmc.or.kr/foreign-missionaries/43406?page=2>)

ABSTRACT

The Missionary Work of Minnette E. Norton and  
the Translation of Fables in *The Children's Wonder Book*

Hur, Soon-woo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missionary activities of Minnette E. Norton and her translation, *The Children's Wonder Book*. There have been few, if any, studies of this collection of fables, while another of her translations, *The Emperor's New Clothes and Other Stories*, is recognized as one of the key collections of fairy tales in the formative years of children's literature in Korea. Moreover, her missionary work in Korea is little known as well.

Above all, the findings show that she arrived in Korea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and joined the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where she spent almost 20 years engaging in teaching and instructing children, young girls, and women in places such as Haiju and Seoul, while also serving on a medical and a publishing committee. In her later years of missionary work between 1923 and 1925, she translated and published three literary works: *The Children's Wonder Book*, *The Emperor's New Clothes and Other Stories*, and *The Lamé Prince*. *The Children's Wonder Book* is a translated collection of famous old British and American fables, including several of *Aesop's Fables*. The simplicity of the Korean expressions used in the translation suggests that the book targeted relatively young children. *Aesop's Fables* were already featured in Korean school textbooks from as early as the late 19<sup>th</sup> century, and at the time of Norton's translation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the fables were used as teaching material to convey messages of enlightenment and self-development. As a member of a Christian missionary committee, Norton sought to translate these stories to concisely embody the values that the missionary associations hoped to instill in Korean students.

**Key Words**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Haju, Seoul, instruction, publication, children, *Aesop's Fables*, translation

논	문	투	고	일	:
				2022.01.25.	
심	사	완	료	일	:
				2022.02.09.	
계	재	확	정	일	:
				2022.02.16.	